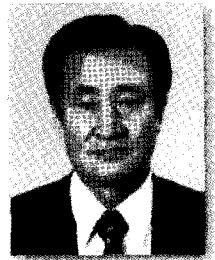


# 소나무의 전정 및 수형 만들기 ①

## - 개요 -



1. 수형의 해설과 종류
2. 수형만들기의 예찰
  - (1)모양목 만들기
  - (2)모양목 가지배열 예
3. 소나무 전정하기(5.6월호에 개재)
  - (1)소나무의 맹아력
  - (2)소나무의 전정시기
  - (3)소나무의 전정



이상웅 | 부회장  
(사)한국조경수협회

### 1. 수형의 해설과 종류

수형이라 함은 물론 소나무에서 뿐이 아니고 모든 수종의 나무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형은 수간(원줄기)과 가지의 구조적 형태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는 주로 그 수종 자체로의 생장습성에 의한 수형도 있겠으나 그 수목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입지환경 요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 형태의 수형을 미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소나무의 수형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여 작품화 하려는데 있다.

모양목은 수간과 가지의 배열, 각도, 길이, 꼭간의 길이 등이 규칙적으로 되어있어 많은 수량의 동일 상품을 만드는데 쉽게 응용할 수 있으나 문인목의 형은 매우 다양하고 예술성의 가치가 너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인작을 응용하여 작품화 하려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무한한 예술성이 요구된다.

문인작형에는 현애형, 반현애형, 포복형, 사간형, 직간형, 쌍간형, 주립형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수형의 구분은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에 따라 원형, 원추형, 난형, 배상형 등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겠고, 수간의 곡에 따라 직간형, 곡간형, 사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형의 분류에서 분류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에서 무슨 형이다 하면 그 형의 미적 감각과 특성을 찾아내어 예술적 작품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분재에서 모양목의 작품 ※



현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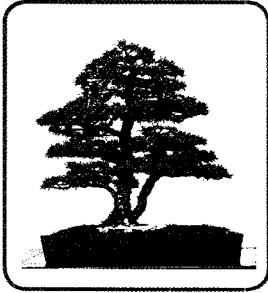
반현애



근부형



곡간형



직간형



쌍간형



사간



곡간



처진형



계단형



총간형



원형



우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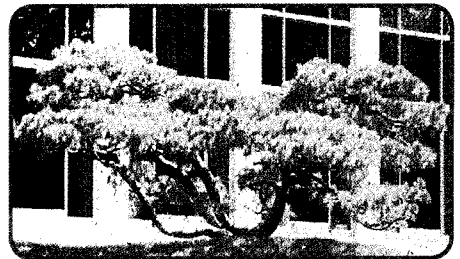
쌍간



삼간



부정형



와룡형

## 2. 수형 만들기의 예찰

수형이라 함은 물론 소나무에서 뿐이 아니고 모든 수종의 나무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형은 수간(원줄기)과 가지의 구조적 형태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는 주로 그 수종 자체로의 생장습성에 의한 수형도 있겠으나 그 수목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입지환경 요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 형태의 수형을 미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소나무의 수형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여 작품화 하려는데 있다.

모양목은 수간과 가지의 배열, 각도, 길이, 폭간의 길이 등이 규칙적으로 되어있어 많은 수량의 동일 상품을 만드는데 쉽게 응용할 수 있으나 문인목의 형은 매우 다양하고 예술성의 가치가 너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인작을 응용하여 작품화 하려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무한한 예술성이 요구된다.

문인작형에는 현애형, 반현애형, 포복형, 사간형, 직간형, 쌍간형, 주립형 등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수형의 구분은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에 따라 원형, 원추형, 난형, 배상형 등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겠고, 수간의 곡에 따라 직간형, 곡간형, 사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형의 분류에서 분류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에서 무슨 형이다 하면 그 형의 미적 감각과 특성을 찾아내어 예술적 작품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여러 가지 수형에서 수형만들기를 정확하게 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정확한 미적 평가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있다하여도 생장하는 수목에 정확하게 적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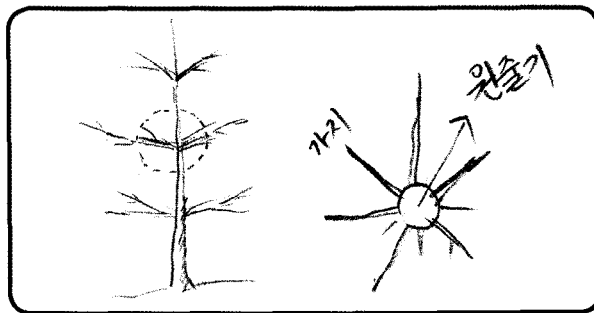
예를 들어「사간작」이다 하면, 그 각도를 얼마나 기울여야 하는지 폭은 얼마로 하며, 높이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는 어느 것이 맞다 할 수 없다.

혹은 맞다 하여도 수형은 항상 변화하고 사람마다 취향 및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사람은 인공미를 싫어하고 어느 사람은 마음대로 생긴 모양을 싫어한다. 그러나 작품성은 자연미에 인공미가 가미된 것을 말하지 않는가? 자연에서 매우 좋은 분재 소재를 얻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자연이 아니고 소재이어서 가지 하나를 다듬더라도 인공이 가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소나무의 수형이 어떠한 것인지 객관성을 찾아 기술하기로 한다.

아름다운 수형의 소나무를 재배 생산하려면 우선 어떠한 생김새의 소나무가 운치 있고 아름다운 느낌의 감동을 주느냐하는 것을 살펴야한다.

이는 무성히 자라고 있는 성장목이나 장년목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견디어 낸 노송(老松)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노송에는 바퀴살 가지가 없다. 바퀴살 가지란 소나무가 성장할 때에 층층이 자란 마디를 평면도면으로 보면 원줄기에서 가지가 수레바퀴처럼 사방으로 뻗은 가지들을 말한다.



바퀴살 가지

둘째는 원줄기(수간)에 곡이 들어가 있어야 감동을 준다. 하늘 높이 치솟은 직간형의 장송도 운치가 있어 아파트나 높은 건물에 귀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홀로 서 있는 낙낙장송은 대부분 줄기가 굽슬굽슬 곡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이며, 균식의 경우에도 키가 나지막하며 곡이 있는 소나무를 균식하여야 아름다운 운치있는 모양이 연출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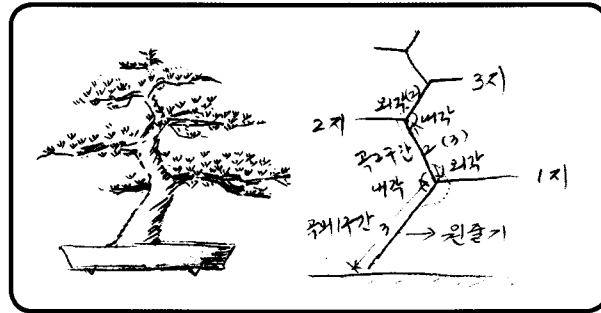
셋째로는 가지의 수관(樹冠)이 얇게 이루어져 있다. 즉 가지에서 이루어진 가지의 관(冠)이 둥글둥글하게 되면 가지까향나무의 수형이 되어 소나무 고유의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없으며 두터우면 투박스러운 모양이 된다.

위에 기술된 세 가지의 사항은 노송의 운치있고 아름다운 기본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형 만들기 및 전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활용 연출함이 수형 만들기의 기본이 된다.

또한 노송들로 이루어진 숲을 멀리에서 바라보면 그 가지들의 배열이 여러 가지 구름모형에서 뭉개구름이나 조개구름의 형태가 아니고 새털구름의 모양으로 가지 관의 모형이 형성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움의 연출은 자연에서 그 모형을 찾아 응용 하는 것이라 하겠다. 소나무의 전정 및 수형 만들기는 분재 수형 만들기를 잘 알면 매우 쉽게 터득할 수 있다.

소나무의 모양에는 자연조건에서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진 문인작(文人作)과 규칙적으로 균형있게 만드는 모양목으로 대별된다. 문인작은 그 형태가 무한하며 천차만별이다. 모양목의 분재에서 가지들을 어떻게 배치하며, 가지가 공간을 차지하는 중량 및 부피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도해를 통하여 공식적인 구조를 찾아내면 다음과 같다.



모양목

작족 모양목의 선 구조

- ① 나무 전체의 곡은 많아야 5개 정도다.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 ② 가의의 발생 위치는 외각이며 내각에서 발생한 가지는 분재에서 사지(死枝)라 하여 훗날에 제거되어야 할 가지이다.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 외에는 의미가 없다.
- ③ 가지의 각도는 90도 정도가 알맞다. 각도가 너무 커 늘어진다면 나무가 약해 보이며 너무 작으면 위로 치켜 올라가 노목의 형태가 아니고 장년목의 형태이어서 모양이 좋지 않게 된다.
- ④ 곡 사이의 구간은 위로 올라가면서 약 3:2 정도의 비례로 줄어들며 올라간다.
- ⑤ 가지의 방향은 사방팔방으로 균일하게 배열하며 나선형으로 곡을 만들어 어느 면에서 보아도 곡이 잘 보여야 한다.
- ⑥ 가지의 길이는 너무 일정하게 비례하여 줄어들게 하지 않고 짧은 가지와 긴 가지가 섞여 전체의 수관이 조화롭게 이루어 지도록 한다. 가지의 중량과 부피도 너무 일정하면 너무 인공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위와 같이 알아낸 사실은 아름다운 수형 만들기의 기본형이라 하겠다. 이를 공식화하면 너무나 인공적이어서 약간의 변칙적 방법이 반드시 작품에 가미되어야 할 사항이다. 소나무는 모양 만들기가 쉬워 어떠한 형으로도 만들어 가꿀 수 있다. 여기서 몇가지 대표적인 형을 만드는 방식을 기술하여 본다.

### (1) 모양목 만들기

이는 성장하는 소나무에 곡을 넣고 노송의 형태를 만들어가며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모양목 조정수를 만드는 방법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작품의 크기이다. 대작이나 소품이나를 결정하여야 첫 곡을 얼마의 길이에서 넣을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수목 한주에 대하여 곡은 3~4개 정도만 넣어야 되기 때문이다. 곡을 넣는 것이 그 작품 틀을 짜는 것이다.

작품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알맞겠는가?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작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으나 규격이 작을수록 분재에 가까우며 크면 클수록 대형목의 조형 소나무가 될 것이다. 가정 정원이나 공원부지 및 기타 가로수로 식재되려면 그 규격(수고)이 3.5m~4.5m 되어야 한다. 즉 경제성을 위하여는 위의 규격이 가장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어려서부터 틀을 짜면 결국 가지하고 가지 사이의 간격, 곡간의 길이 등의 조화가 맞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가이즈까향나무의 틀은 수고(樹高)를 2~3m 키운 후 측면의 가지를 길게 뽑아 둥근 구형을 만들어야지 틀이 큰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1m가량에서부터 틀을 잡기 시작하면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 가지끼리 서로 붙어 구상하는 형을 만들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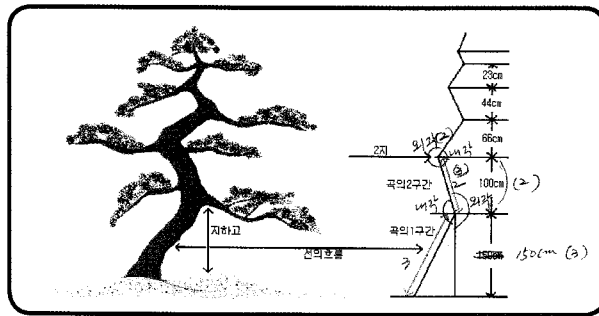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소나무를 만들 경우에도 너무 어려서부터 틀을 잡으면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 어려서는 필요하던 1지, 2지가 성장함에 따라 잘라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들여서 1지, 2지를 만든 후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잘라버린 만큼 수목을 비효율적으로 길렀다 하는 결과가 된다.

수목을 효율적으로 기르는 방법은 무리하게 가지를 무리하게 자르지 말고 잔가지만 살짝 살짝 따주며 기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수간에 곡을 넣어줄 때에도 어려서부터 곡을 넣어주면 완성목이 될 때 가지는 매우 많은 곡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앞서 기술했지만 매우 곡이 많아 부담스럽고 조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고(樹高)를 3~4m, 곡(曲)을 4~5개 정도를 넣어 완성품의 조형 소나무가 아래 「모양목 A」라고 하면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양목의 도해

소나무의 수형(樹形) 만들기는 성장하는 소나무에 곡(曲)을 넣는 기법(技法)에 대하여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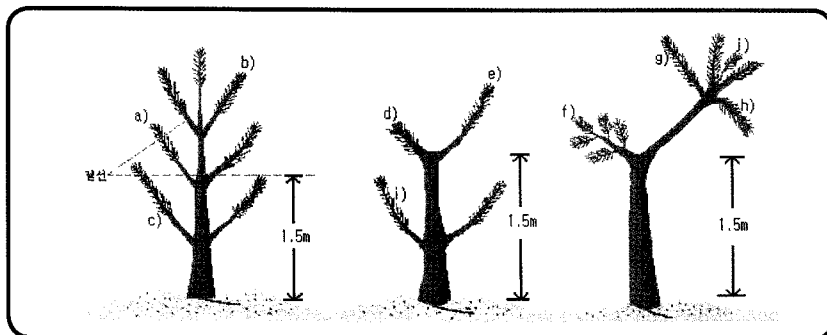
소나무의 곡(曲)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어린나무에 곡(曲)을 넣으면 성장함에 따라 곡(曲)은 점점 직선(直線)으로 퍼져간다. 따라서 성장하였을 때를 고려하여 곡(曲)을 더욱 크고 세게 넣는다.

곡(曲)은 갑자기 꺾이는 각(角)보다 휘는 각(角)이 감동(感動)을 준다. 즉, 꺾은 각(角)보다는 용트림(용트림)하여 휘감는 각(角)이 아름다움을 준다. 이도 또한 자람(자람)에 따라 퍼질 것을 고려하여 곡(曲)을 강하게 넣어주어야 한다.

그림 「모양목의 도해」처럼 수형(樹形)을 만든다면 제일 먼저 곡(曲)의 1구간(1구間)부터 위로 곡(曲)의 2구간(2구間), 3구간(3구間) 올라가면서 곡(曲)을 넣어간다.

① 곡(曲)의 1구간(1구間) 넣기



그림(가)

그림(나)

그림(다)

구간의 첫 곡을 넣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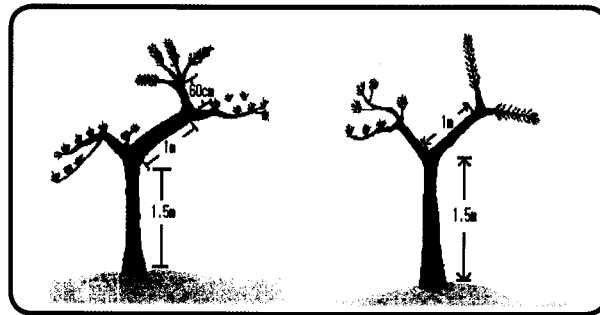
도해「그림(가)」에서 1구간의 길이(지하고)가 1.5m이므로 (a)의 가지와 (e)의 가지만 남기고 (b)의 부분을 전부 빼낸다. 그리하여 1년 후에 그림(다)의 모양을 만든다.

그림(다)는 그림(가)의 (a)가지는 좀 짧게 잘라 그림(다)의 (f)가지를 발생시킨다.

그림(나)의 (i)부근의 가지들은 전부 잘라주어도 되지만 가지가 너무 적으면 생장에 장애가 되므로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다음해에 제거한다.

그림(가)의 나무를 전정해 놓아 그림(나)가 되었다.

1년이 경과하면 그림(다)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그림(다)에서 (j)의 부분에서 아래로 향한(h)만을 남기고 (i)부분을 빼버리면 그림(라)와 같은 모양으로 간다.



그림(라)

그림(마)

그림(라)에서 또다시 1년이 경과되면 그림(마)와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5~6구간의 곡을 넣으면 완성된 모양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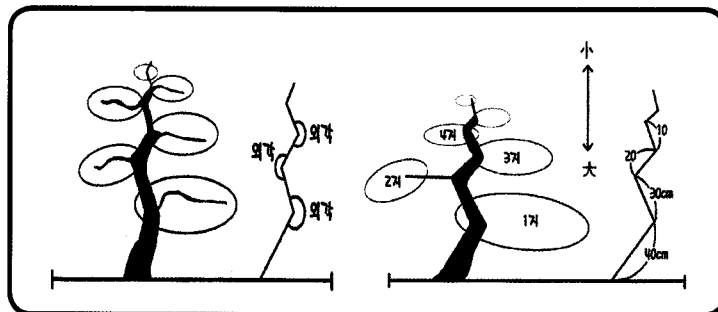
여기에서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모양목을 도해한 선의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배열되려면 1구간, 2구간 위로 올라가면서 원추형으로 곡을 넣어가야 한다.

또한 곡의 구간은 위로 올라가면서 구간 사이의 길이에 대한 비례는 3:2 정도가 알맞겠으나 그러한 범위내에서 리듬을 살려가며 곡을 넣는다.

앞에 기술한 바 있지만 곡을 넣을 때에 꺾은 곡을 넣는 것보다는 가끔씩 돌아간 곡을 넣으면 용트림이 된 모양으로 되어 더욱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작업이 번거롭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수형 만들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은 그 수목의 정상부에 어떻게 하면 밑가지들과의 리듬을 잃지 않고 원순을 세워주느냐 하는 것이 분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구간의 리듬과 길이가 맞지 않으면 다시 다른 가지를 유도하여 세우거나 혹은 새가지를 발생 성장시켜 세워주도록 한다.



줄기 곡 만들기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비율



수형 유인



모양목 수형

곡간 정산순 세워준 사진(정상순 유도)

(2) 모양목 가지배열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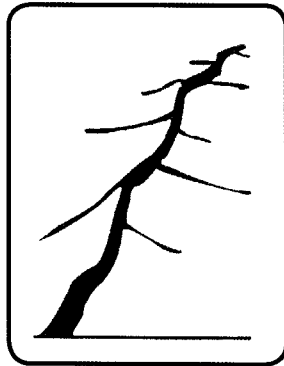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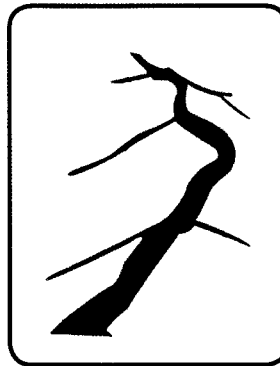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 ☞ 그림 1 - 모양목은 가지의 움직임을 엇갈리게 하나의 기준으로 유인한다.
- ☞ 그림 2 - 수평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모양의 변화에 따라 가지를 배열한다.
- ☞ 그림 3 - 직간의 수형은 가지 각도는 밑으로 늘어지는 수형을 눈짐작으로 유인한다.
- ☞ 그림 4, 5, 6, 7 - 모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씩 수고를 조절하면서 유인한다. 🌲